

TV, 3D TV 중심으로 시장 재편

디스플레이서치, 1/4분기 TV 판매량 5122만대 ... 3D 비중 16%

세계 TV 시장규모가 줄어들었지만 3D TV 시장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2012년 1/4분기 세계 TV 판매량은 총 5122만대로 2011년 1-3월 5554만대에 비해 8%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삼성전자가 2011년 1/4분기에 비해 3%포인트 높아진 21%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고 LG전자는 16%로 2위를 차지했으며 소니(7%), TCL(6%), 파나소닉(6%) 순이었다.

글로벌 경기 침체로 평판 TV 시장도 2011년 1/4분기 4800만대 수준에서 2012년 1/4분기에는 4600만대 수준으로 4% 감소했다.

그러나 삼성전자는 1/4분기 평판 TV 판매량이 1000만대를 넘어 점유율(매출 기준)이 2011년 1/4분기(22.2%)에 비해 3.8%포인트 확대돼 26.0%를 나타냈다.

특히, LED TV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8.1%를 기록해 2.7%포인트 높아졌다.

세계 LCD TV 시장에서 LED TV의 비중이 70%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응해 삼성전자가 LED TV의 공급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.

전체 TV 시장 위축에도 3D TV의 성장세는 지속돼 1/4분기 시장규모가 2011년 1/4분기 209만대보다 245% 폭증해 719만대에 달했다.

평판 TV 중 3D가 차지하는 비중도 16%로 1년 전보다 12%포인트가 높아졌다.

3D TV 시장에서는 LG전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.

삼성전자는 1/4분기에 3D TV 시장점유율이 25%로 세계 1위를 유지했지만 1년 전에 비해 9%포인트, 4/4분기보다는 5%포인트 낮아졌으나, LG전자는 8%에서 16%로 급상승해 2위로 부상했고, 삼성전자와의 격차도 9%포인트로 줄었다.

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국내기업의 3D TV 시장점유율은 41%로 2011년 4/4분기 45%에 비해 4%포인트 낮아졌다.

2011년 1/4분기에 27%에 달했던 소니는 12%로 급락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21>